

윤장현 “광주공항 이전 전향적 판단 필요”

군·민간공항 연계보다 지역 미래 감안 해법 찾아야

무안공항 활성화로 車·에너지 연계... 본격 논의 주목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민간)공항 이전과 관련 전향적인 판단과 무안공항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광주공항 및 군공항 이전 문제에 전기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 시장은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연계하기보다는 지역민, 지역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미래를 감안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시장은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미래로 가는데 있어 광주·전남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광주공항 이전 문제”라고 말을 꺼냈다. 그는 “군공항 다 가면 그 때 (광주공항)주겠다는 것은 미래 비전이 없는 논리”라며 “지금 당장 어느 시기를 막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든가 좀 더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광주시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한 것이다.

윤 시장은 이어 “자연스럽게 군공항도 가면서 민간공항 통해서 무안공항을 활성화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5개 국제노선이 있는 대구공항과 비교하면서 일본이나 중국을 가는 지역민들이 인천공항 등 타지역 공항을 이용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문제점도 거론했다.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추공항으로 활성화해 광주의 자동차산업, 에너지산업 등이 경쟁력 향상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고속철도 2단계가 개통되면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은 15분 거리”라며 “세계로 향한 창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간헐적 생각에만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무안공항을 활성화할 것인가 전향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그래야만 군공항 이전도 탄력을 받고 할

게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전년을 본다면 광주만의 시각을 뛰어넘는 비전을 위한 거대담론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무안공항과 일본 기타큐슈, 중국 광저우 간 전세기 및 직항 노선을 제안하는 등 무안공항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문화관광포럼이 이날 개최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유희·전시·무역·금융 등을 포함한 국제업무 기능 지역 조성, 과감한 비자 면제 정책, 공항 편의시설 인프라 확충 및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 무안공항 활성화 전담팀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본격 김장철을 맞아 배추와 무 등 김장채소 가격이 폭락하면서 광주 전남지역 재배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광주시 북구 월출동 금당마을 배추밭에서 농민들이 수확한 배추를 차량에 싣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겨울 배춧값 폭락에...재배농 “봄배추 털 심겠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호남 25% 감소 전망

겨울 배추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들이 내년 봄배추 재배면적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최근 표본농가들을 대상으로 내년 봄배추 재배 의향면적을 조사한 결과, 올해보다 16.7%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형태별로는 시설 봄배추 감소폭(-17.7%)이 노지 봄배추 감소폭(-16.5%)보다 클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 감소 폭은 호남 -24.6%(-10.0%~-28.2%), 경기·강원 -16.7%(시설 -31.3%·노지 -13.1%), 충청 -20.3%(-22.3%~-19.8%), 영남 -7.1%(-8.3%~-6.8%) 등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겨울 배추 가

격이 낮아 농가들이 내년 봄 배추 재배 면적을 줄이려고 한다”며 “그러나 아직 재배 의향을 결정하지 못한 농가도 있는 만큼 향후 시세 등에 따라 봄 배추 재배 면적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달 배추 출하량은 작년보다 26%, 내년 1월에는 작년보다 19%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격도 이달은 작년 같은 기간(8770원/10kg)보다 낮은 4500원으로 전망됐다. 내년 1~2월은 올해 같은 기간(9036원/10kg)보다 낮은 겨울 배추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어서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내년 1월까지 가을, 겨울 배추 주산지인 전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고, 강수량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한파, 폭설 등과 같은 이상기상이 발생할 경우 가격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유기동물 맡아 주실 분 없나요”

광주시 위탁기관 찾지 못해 보호소 운영 골머리

광주시가 유기동물을 맡아서 보호하고 관리할 위탁 기관 선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하기에는 업무가 나지 않아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선뜻하겠다는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에 이어 오는 15일까지 동물보호소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기관 신청을 받기로 했다. 1차 공모에서는 응모 기관이 없어 2차 공모가 진행 중이다.

2011년부터 운영된 동물보호소는 2015년까지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맡은 뒤 2016년과 지난해 광주동물사랑네트워크와 ‘위드’가 1년씩 맡아 운영했다. 지난해도 위탁 기간이 애초 2년이었으나 중도에 포기하면서 위드가 5차례 공모 끝에 잔여

기간을 맡는 등 매년 운영기관 선정 문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체나 기관에서 보호소 운영에 소극적인 것은 들어오는 동물이 연간 3000마리에 이르는데다 한정된 지원비와 관리 인력 부족, 잦은 민원 등으로 운영에 애로가 크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연간 위탁 운영비를 2011년 3억원에서 내년에는 3억7000만원으로 높였다. 보호소는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 진료, 입양동물 등록, 동물보호소 홈페이지 및 APMS(동물보호관리시스템) 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구두로 운영을 맡겠다는 단체가 있어 일단 접수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매년 위탁기관 선정에 애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송암산단 1031억 투자 첨단실감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광주시 남구 2020년까지

광주시가 남구 송암일반산업단지에 오는 2020년까지 1031억원을 투입해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12일 “송암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가·변경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최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에 따라 송암일반산업단지는 2020년 말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고성장·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인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이자 문화콘텐츠산업 거점지로 조성된다.

또 송암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문화시설용지로 변경 결정했다. 3만9772.3㎡ 규모의 문화시설 및 공공청사 송암일반산업단지 내에 들어올리게 된다. 재원은 국비, 시비 등 1013억원이다.

시는 송암공단에 1단계 사업으로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구축한다. 이어, 오는 2020년까지 2단계로 첨단실감콘텐츠제작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향후 3단계로 송암산단 전체를 ICT(정보통신기술)와 문화콘텐츠산업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 ‘경제와 일자리 상징’ 핵심거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오늘 하반기 회의

금호타이어 정상화 등 논의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하반기 본회의가 13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협의회 위원장인 윤장현 시장의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윤종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의장,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김영미 광주시고용노동청장, 장진군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무, 백석광주경영실련 대표 등 노사민정 위원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자문기구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참석해 ‘신뢰, 상생 그리고 대화’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문 위원장은 특강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 위원장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는 전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지역 맞춤형 협의회 운영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며 “광주에서 접화된 사회적 대화의 열기와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돼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방안’,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 지역 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이 공식 의제로 다뤄진다. 이후 문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노동조합과 사측으로부터 공식 요청에 따라 금호타이어를 방문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통시장 우리가 지킨다

광주시 ‘자율안전 지킴이’ 본격 활동

광주시는 전통시장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펼칠 ‘전통시장 자율안전 지킴이’가 활동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안전 지킴이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 24명과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관계자 5명 등 총 29명이 위촉됐다.

지킴이들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 일차적으로 자체 점검하고 전기·가스·소방·시설물 등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 유지를 한다.

시장 내 상존 위험요인 사전 발견 및 제거, 관리점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 각종 안전 관련 교육 참여 등 안전 마인드 제고 활동도 보인다.

광주시는 이날부터 19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안전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겨울철 전통시장 내 전기·가스·소방 시설 등 분야별 안전 점검을 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소방안전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정밀 안전진단 실시와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호남 및 제주권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 맞춤형 취업지원컨설팅 프로그램

함께 취업을 준비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1:1 상담으로 맞춤형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대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의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으로 이공계열 기업 취업 희망자

프로그램 운영 내용 (100% 정부지원)

- 개인 맞춤형 상담으로 필요한 정보 제공
- 취업 희망하는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과학지도사, 식품생물산업 특화프로그램 등 운영
- 4차 산업 혁명 대비 미래 새로운 과학기술프로그램 운영

문의처 **WISET 호남제주권역사업** Tel. 062) 530-0497-8

2018학년도 신·편입생 및 외국인학생 모집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사자격 미소지자 지원 가능)

- 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학위과정 302명(야간제, 계절제)
- 전형구분** - 야간제: 일반전형, 특별전형(시·도교육감 추천, 외국인 학생, 편입학)
- 계절제: 일반전형, 특별전형(외국인 학생, 편입학)
- 모집전공 (20개 전공, 계절제는 일부 전공 제외)**

초등도덕교육	초등국어교육	초등사회과교육	초등수학교육
초등과학교육	초등체육교육	초등음악교육	초등미술교육
생활융합교육	초등영어교육	컴퓨터교육	교육과정과수업
교육행정·정책	교육상담	유아교육	다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기획	아동문학교육	발명영재·로봇교육	진로진학컨설팅교육
- 지원자격:**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단, 교육상담 전공은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3년 이상 교육경력).
- 원서접수:** 2017.12.5.(화) ~ 12.14.(목)
※ 인터넷 접수[http://www.uwayapply.com(유웨이어플라이)]
- 장 학 금:** 입학·수입로장학금, 공로장학금(원우회), 주임교수추천장학금, 해외연수장학금 등
- 특 전**
 - ▶ 교육상담 전공 졸업시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 (초등 2급 이상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교육경력 3년 이상자)
 - ▶ 졸업시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초등 2급 정교사 중 교육경력 1년 이상자)
 - ▶ 졸업시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유치원 2급 정교사 중 교육경력 1년 이상자)
 - ※ 위 특전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은 교사 또는 기타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 광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모집요강) 참고
※ 문의: 062)520-4082~3, http://www.gnue.ac.kr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